

# 이른 무더위 에어컨 “잘팔리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역유통업체도 에어컨 대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쳐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10일 지역유통업체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 3-5월 에어컨 사전예약 판매량은 3.4%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에어컨 사전예약 판매제’를 실시해 고객으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른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날때 구입할 경우, 설치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백화점은 이를 고려해 3-5월에 사전 구매고객을 예약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3-5월 동월기간 사전구매 판매량은 2016년 145.4%, 2017년 168.6%를 기록했다.

광주 이마트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3.7%의 신장률을 보이며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에어컨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유통업체도 다채로운 할인전과 이벤트를 행사를 마련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다음달 2일까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삼성·LG·대우전자·캐리어에어컨과 선풍기, 제습기 등 가전제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하는 ‘무더위 철벽방어 에어컨 대전’을 연다.

제품 구매 고객에게 가격 할인,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권 상품 이벤트로 1등(2명) 당첨 고객에게 ‘러시아&북유럽 여행권



롯데백화점 10층 가전매장을 찾은 고객이 기능성 에어컨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사전예약 3.4% 신장  
광주이마트, 판매량 3.7% 급격히 늘어나  
미세먼지 원인 공기청정 기능성 제품 인기**

(4인권)을 제공한다.

스탠드형 에어컨 20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24개월 무이자 혜택과 1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벽걸이형 에어컨 6평형 이상 모델 50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12개월

무이자 혜택과 2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혜택은 비씨카드 결제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광주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이 에어컨 구매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이 위축되고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 제습 등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은퇴 농업인도 ‘농축협 조합 혜택’

농식품부, 70세 이상 조합가입 등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고령 농축협 조합원이 은퇴 후 조합원 지위를 잃더라도 조합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 조합원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1일자로 명예 조합원에 대해 교육지원사업, 배당 청구권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관 고시인 농축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정관례는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은퇴 농업인이라면 준조합원으로서 소정의 가입금과 경비 등을 납입하고 조합 사업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해 조합 사업을 계속 이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조합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도입 여부는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세부 내용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면 된다”며 “이번 제도가 고령 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야기배달부 동개비’가 동화음악극 공연모습.

## 광주 진흥원, ‘이야기배달부 동개비’ 전국공연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이 정현)의 지원을 통해 제작된 애니메이션 ‘이야기배달부 동개비’가 동화음악극으로 재탄생해 지난달부터 전국 공연을 시작했다

동화음악극 ‘이야기배달부 동개비’는 (주)스튜디오 피쉬하이커에서 제작해 2017년 지상파를 통해 방영한 동명의 애니메이션

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어린이 대상의 공연물로 다시 제작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전국공연은 지난달 28일 충북 부용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파주시, 춘천시, 거제시 등 전국 10개의 초등학교, 아동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이나라 기자

# 중기 광주전남청, 광주공동브랜드 판로개척

수출컨소시엄사업 선정...바이어 초청 등 해외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광주테크노파크의 광주공동브랜드 등 4개 사업이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에 가점분야 주관단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전남청은 올해 전국 18개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중 4개 사업을 운영(제주 1개 포함)하게 됐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3개 단체인 광주가전(광주TP·City Of Peace), 광주자동차부품(광주자동차에프티마켓협의회, Wellcar), 전남농수산식품(전남수출기업협동조합, 전라미향)은 업종별 특화된 공동브랜드를 활용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 대기업의 해외이전 및 하청납품

에서 탈피,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판로확대를 위해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가전 공동브랜드(City Of Peace)를 만들었다.

중기부 수출컨소시엄사업은 해외시장 조사, 현지파견, 바이어초청 및 사후관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국내 최초로 업종용 해동기를 생산하고 하는 ㈜인아 등 제품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가전분야 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및 동남아(홍콩) 지역에서 현지 수출상담회 등 신규바이어를 발굴하고,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청은 공기청정기, 주방용 조리기 등 소비재 용품을 대상으로 중진공 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 연계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형 청장은 “광주시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중기부가 해외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만큼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괄목할만한 수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가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062-602-7782) 및 광주전남청 수출지원센터(062-360-9192)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 시중금리 오르면서 취약층 연체 ‘비상’

저금리로 풀린 대출 금리상승...연체 악순환

시중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급속히 불어난 가계대출이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 부실화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2-13일 정례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재차 인상할 가능성이 커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압박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부실화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을 보면 1분기 말 0.52%로 지난해 말의 0.51% 대비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6%로 0.04%포인트 올랐다.

특히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주택담보외대출의 연체율이 1.30%에서 1.42%로 0.12%포인트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1분기 말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4.5%에서 4.9%로 올랐다. 이중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6.1%에서 6.7%로 0.6%포인트 뛰었다.

2015년 말 10.2%, 2016년 말 7.1%, 지난해 말 5.1%로 하락곡선을 그리던 고정이하연비율이 올해 1분기 말 5.2%로

상승 전환한 것도 금융당국은 불길한 징조로 보고 있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된다. 1분기 말 가계 연체율이 1.38%로 지난해 말 1.16%보다 0.22%포인트 올라간 가운데 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은 1.38%에서 1.65%로 0.27%포인트 급증했다.

최근 나타난 연체는 쉽게 말해 약한 고리만 터지는 일종의 차별화다.

은행권 연체율이 되레 개선된 반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양호하지만 가계대출, 특히 담보도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금융사들이 통상 연말에 부실채권을 소각하므로 연초에 연체율이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출 전체에 미치는 현상일 뿐 금융 취약계층에 집중된 연체율 상승과는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대표전화  
1522-4077

**포인트를 통합하다!**  
Y-MART 앱 설치하면 어느점에서도 쉽고 빠르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

구글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 접속하세요.

‘Y마트’ 검색 후 설치

단골마티 지정하기

‘Y마트’ 앱으로 스마트한 혜택받기

**Y-MART ‘나눔’실천 업체!**  
Y-MART는 앞으로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 20년 동안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사업
- 세실리아 요양원 후원사업
- 매년 3억 이상의 지역사랑 후원사업 및 후원금
- 단일 은누리재활원 후원사업
- 광주지역 경로당 TV, 장수기 지원사업 (200여여)
- 영문요양원 후원사업
- 광주지역요양원 후원사업
- 영문요양원 후원사업
- 광주지역요양원 후원사업
- 노인복지회 후원사업
- 광주지역요양원 후원사업
- 노인복지회 후원사업
- 광주지역요양원 후원사업
- 노인복지회 후원사업
- 광주지역요양원 후원사업
- 노인복지회 후원사업